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2학기부터 소규모 진행'

전주 A 고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따라 서거석 교육감 주재 비상대책회의 열려

최근 전주 A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2학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내놴다. 이는 학생 안전을 생각한 도교육청의 발빠른 행보다.

이에 따르면 21일 현재 8월 이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는 초등학교 78개교, 중학교 134개교, 고등학교 8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497개교다.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2학기 추진 예정인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재심의 과정을 통해 '중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대로 진행 시에는 소규모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소규모란 학교당 100명 이내로서, 그룹 인원 20~30명 이내, 차량 1대당 탑승 인원 20명 이내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등 집단활동 금지 △숙박인원은 1인1실 또는 2인1실 권장(타인방 출입금지 지도 등) △확진자 발생시 귀가 조치 계획 수립 및 숙소 내 확진자 격리 전용 객실 마련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동안 매일 자가진단키트 검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일 정도 재량휴업일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21일 오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학교 방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먼저, 현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3교개의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 및 학생 안전조치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1일 오전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의 8월 이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전수 조사하고 자체 수립한 대응방안을 재검토 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학교들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등 행정·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각심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도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학사일정과 관련해서는 학기별 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방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방역 분야에 대해서는 손소독·발열체크 등 기본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학 중에도 자가진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기자

도내서 일본뇌염 매개체 '작은빨간집모기' 첫 발견

전북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 일본뇌염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뇌염 유행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해마다 4월부터 전주시 소재 우시에 유문등(모기 유인등)을 설치해 주 2회 모기를 채집하고 모기 종별 밀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18~19일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수 기자

해바라기 경관지역에서 산책을



더위가 가장 절정이라는 절기인 대서를 이틀 앞둔 21일 장수군 장계면 천변에 조성된 해바라기 경관지역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장수군청 제공)

도, 국가예산 확보 중횡무진

김정훈 정무부지사, 국회 찾아 지역·연고 의원에 현안 건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북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핵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전국을 누비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연일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훈 정무부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지역·연고 국회의원에 전북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을 위해 원팀의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대통령 전북 지역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돼야 한다며 집권당 의원으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채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요즘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별 핵심



산업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며, 내년도 신규 3개소 지정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을 만난 김 부지사는 이원택 의원을 만나 농생명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채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설명하며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예결 소위 위원이자 산자위 위원인 신영대 의원에게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 '채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군산-연도-여청도 항로 분리 지원금'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윤준병 의원에게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한병도 의원에게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구축',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김수홍 의원에게는 '국립 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 '국립 호남권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유치'를 김성주 의원실에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김윤덕 의원실에 '부안 백산정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혁명 전당 건립',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을 안호영 의원실에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설립', '동서회합 육십령 가이아미터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경수 기자

도 · 일일신문 쉽다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고창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2021년 7월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고창고인돌 (2000년12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2013년 5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판소리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농악 (2014년)